

##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내외를 위한 만찬사

존경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녁 도미니카공화국의 귀한 손님들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한번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십니다. 공공부문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치안강화와 물가안정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개방정책은 새로운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9%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서도 카리브 국가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미·중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이러한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카리브의 중심국가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의 저력과 각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오늘 수교 44년 만에 처음 가진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습니다. 두 나라 간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역과 투자는 물론 IT·에너지·관광 등 여러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보장협정'도 체결되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IT 분야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IT협력약정'에 이어 이번에 '관세청 정보화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협정'이 체결되었고, 전자정부나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큼니다. 카리브·중미의 IT 허브로 나아가는 도미니카공화국에게 한국은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야구 강국으로, 또 카리브 해의 아름다운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가 보고 싶어 합니다. 각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와 체육, 학술 등의 민간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